



# 2022년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 점진적인 시장 회복 기대 속, 생존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ESG 대응 필요 -

2022. 1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정지훈 책임연구원

# Contents

## I 2022년 세계경제 전망

1. 세계 교역량, 경제 성장률
2. 주요 환율 전망
3. 국제 원유 시장

## II 2022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1. 중동, 아시아
2. 북미·태평양, 아프리카
3. 유럽, 중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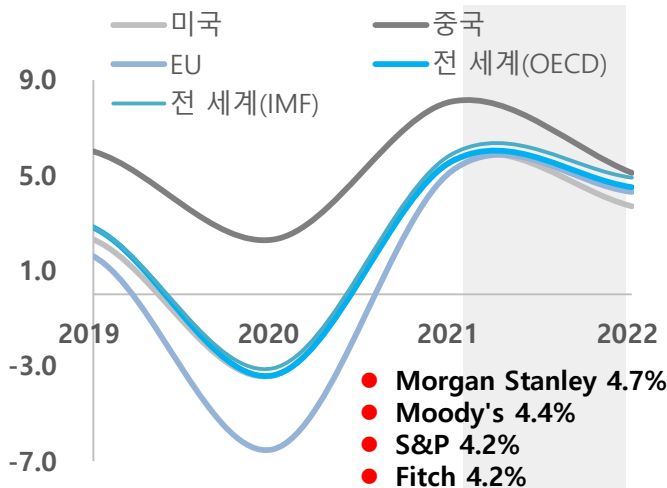
## III 해외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

1. 디지털 신기술 도입 확대
2. 탄소중립 등 ESG 확산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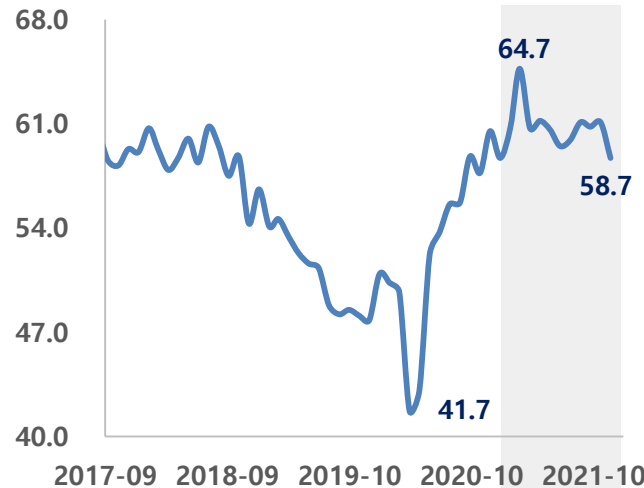
- 코로나 대응 양상 및 경제 회복 속도의 국가·지역간 차이,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나 4.2~4.9%대의 양호한 성장 전망
- ✓ **(경제 성장률)** 선진국·신흥국 간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및 경기 회복 속도의 양극화 등 회복 둔화 요인이 존재. OECD는 세계 경제가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3.7%), 중국(5.1%), EU(4.3%) 성장세 기대
- ✓ IMF는 '21년 대비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미국 등 선진 경제권은 4.5%, ASEAN-5 등 신흥 경제권은 5.1% 할 것으로 예상함. Moody's(4.4%), S&P(4.2%), Fitch(4.2%) 등 3대 신용평가사도 4%대의 성장을 전망함
- ✓ **(Composite PMI)** 제조업,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한 구매자관리지수는 '20.4월 41.7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 회복세를 보이며 '21.3월 64.7로 최고치를 기록. 이후 정체 또는 감소세로 돌아서 '21.12월에는 58.7을 기록
- ✓ **(글로벌 기업 CEO의 경제 전망)** 코로나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에도 향후 경제 회복세를 예상하는 비중은 32%('20.3Q) - 42%('21.1Q) - 60%('21.3Q)로 증가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낙관적 기대 심리가 유지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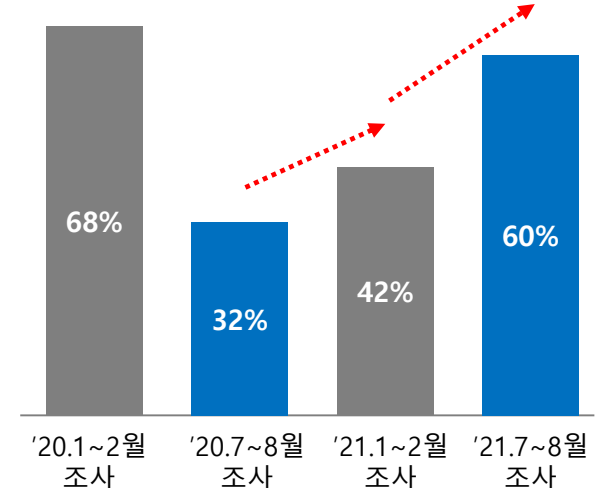
[출처 : WTO('22.1), ICAK 정책지원센터]

글로벌 PMI(Composite)



[출처 : Nasdaq('22.1), ICAK 정책지원센터]

글로벌 기업 CEO의 경제 전망



[출처 : KPMG('22.1), ICAK 정책지원센터]

\* 글로벌 기업 CEO 1,325명을 대상으로 진행

- **선진국의 자산매입 축소 등 통화정책 기조 변경, 전 세계 GDP 대비 256%에 달하는 부채 비중 등 불확실성 상존**
  - ✓ '21.9월 이후 주요국은 코로나 백신 보급, 경기 회복세,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자산매입 규모 축소 및 중단하는 중앙은행들이 증가함. 다수의 신흥국은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음
  - ✓ Bloomberg('21.12)에 따르면, '20년 전 세계 부채는 226조불로 전 세계 GDP 대비 256%로 전년 대비 29% 포인트 상승함. 증가한 부채의 90%는 주요 선진국 및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개도국은 높은 자금조달 비용 및 제한된 자금력으로 인해 부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 ✓ IMF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 및 경제 회복 둔화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부채가 민간투자 확대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 그 외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 G2 갈등 등 국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도 우려됨

## 선진국의 자산매입 축소 현황

국가	주요 내용
미국	자산 매입규모 축소 (150억불→300억불)
호주	주당 매입규모 축소 (50억→40억 호주달러)
캐나다	주당 매입규모 축소 (40억→30억→20억 캐나다달러)
스웨덴, 뉴질랜드, 이스라엘,	신규 자산매입 중단 등

[출처 : 한국은행('21.11), 각국 중앙은행,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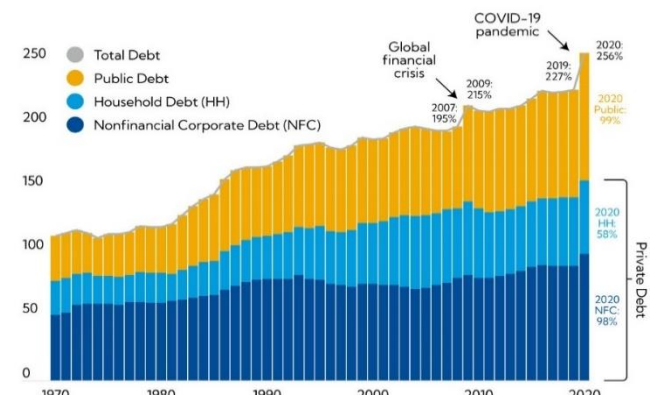
## 신흥국의 정책금리 조정 현황

국가	주요 내용	비고
브라질	2.00→7.75%	575bp
페루	0.25→2.00%	175bp
칠레	0.50→2.75%	225bp
콜롬비아	1.75→2.50%	75bp
러시아	4.25→7.50%	325bp
폴란드	0.10→1.25%	115bp
체코	0.25→2.75%	250bp

[출처 : 한국은행('21.11), 각국 중앙은행, ICAK 정책지원센터]

##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중

**Historic highs**  
In 2020, global debt experienced the largest surge in 50 years.  
(debt as a percent of GDP)



[출처 : IMF('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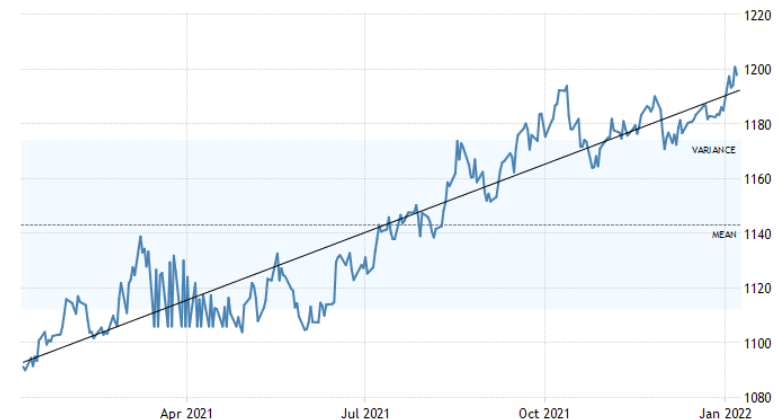
- '22년 대내외 변수 등을 고려할 때, 주요 통화 중 달러화는 강세, 엔화 및 유로화는 약보합세, 위안화는 변동성 확대가 전망됨
  - ✓ **(달러인덱스)** 미국 연준(FED)의 테이퍼링(Tapering) 속도 증가,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등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금융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특히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 달러 인덱스(Dollar Index, DXY)는 '21.1월 ~ 10월간 89~94 수준을 등락했으나, '21.11월부터 상승하면서 95~97 수준으로 올라서며 강세 구간에 진입하고 있음
  - ✓ **(원/달러)** 원/달러 환율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중국 부동산 그룹의 유동성 우려 등의 영향으로 '21.10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지속함
  - ✓ 이후 양호한 미국의 기업실적 발표 등으로 환율은 1,16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21.11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에 따른 미국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발표 등으로 1,180원대로 다시 상승함
  - ✓ '22년 원/달러 환율 전망치 관련 컨센서스는 1,020 ~ 1,280원으로 전망

달러 인덱스 추이



[출처 : tradingeconomics('22.1), ICAK 정책지원센터]

원/달러 환율 추이



[출처 : tradingeconomics('22.1), ICAK 정책지원센터]

-

## '22년 주요 환율 전망

구분		'20년	'21년	'22년(F)				
		연간	연간	1Q.	2Q.	3Q.	4Q.	연간(F)
원/달러	평균	1,166	1,135	1,133	1,130	1,120	1,115	1,125
	최고			1,200	1,220	1,250	1,280	1,280
	최저			1,020	1,020	1,030	1,030	1,020
달러/유로	평균	1.12	1.19	1.18	1.19	1.19	1.20	1.19
	최고			1.26	1.26	1.28	1.30	1.30
	최저			1.12	1.12	1.13	1.14	1.12
위안/달러	평균	6.90	6.90	6.42	6.42	6.43	6.39	6.42
	최고			6.81	6.91	6.87	6.80	6.91
	최저			6.20	6.25	6.10	5.99	5.99
엔/달러	평균	109	109	112	112	112	112	112
	최고			115	116	116	118	118
	최저			105	103	101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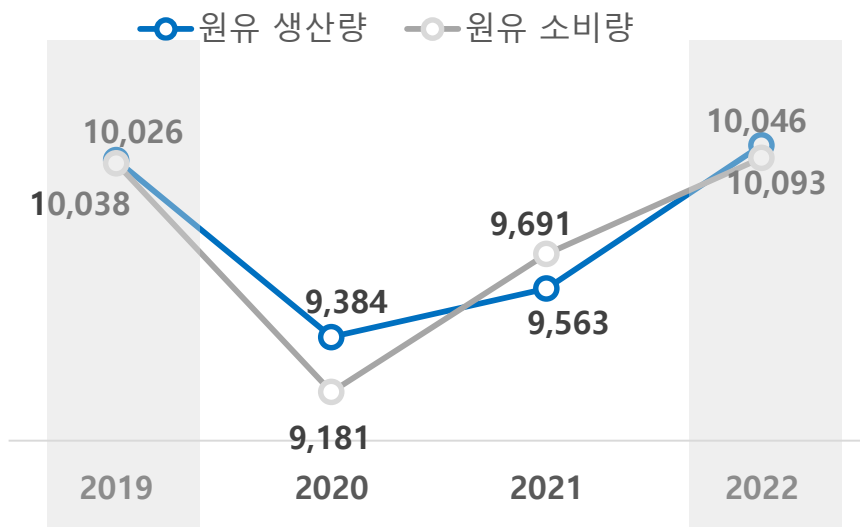
[출처 : Bloomberg, 현대차증권, ICAK 정책지원센터]

\*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환율전망 종합



- (원유 수급)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2년 원유 생산량 및 소비량 모두 '20, '21년 대비 증가하며 코로나 팬더믹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 (수급 전망) '22년 전 세계 일일 원유 소비량은 10,088만배럴 수준으로 예상되며, 원유 생산량은 10,142만배럴로 전망됨
- ✓ (주요 변수) 미국은 그간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 OPEC+에 증산을 요구('21.10월, G20 정상회의) 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 오미크론(Omicron) 출현에 따른 유가 변동에도 전략비축유 방출을 발표함
- ✓ 향후 OPEC+의 원유 공급량 결정('22.1월 OPEC+ 40만 배럴/일 증산 결정),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재개된 이란핵합의 복원협상 추이도 원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연도별 원유 수급 추이 및 전망(만배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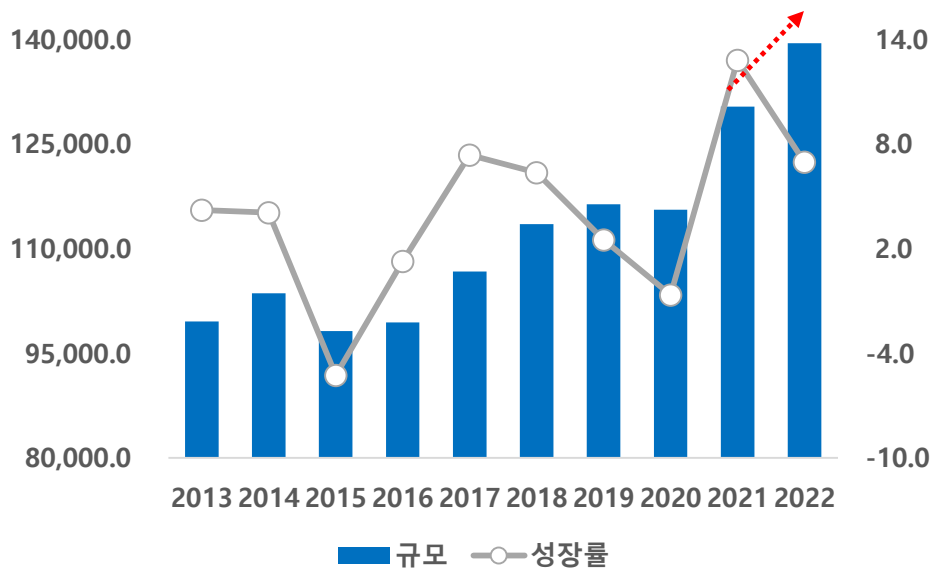
구분	생산량(A)	소비량(B)	A-B
2019	10,038	10,026	12
2020	9,384	9,181	203
2021	9,563	9,691	-128
2022	10,093	10,046	47

[출처 : EIA('21.12), ICAK 정책지원센터]

-

- 글로벌시장 조사기업 IHS Markit에 따르면, 2022년 세계건설시장은 2021년 대비 7.0% 성장한 13조 9,419억불로 전망**
- ✓ (코로나 등 여전한 불확실성)** 백신 접종 및 경구용 치료제 보급시, 팬더믹 초기와 같은 조치 가능성은 희박하나,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및 공급망 정상화 여부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 (ESG, 디지털화 등 시장환경의 급변 가속화)** 전반적으로 각 국의 인프라 투자는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ESG 경영 확산에 따른 발주 공종 변화, 지역사회와의 상생, 안전,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요구 등 시장 환경 변화의 정도와 속도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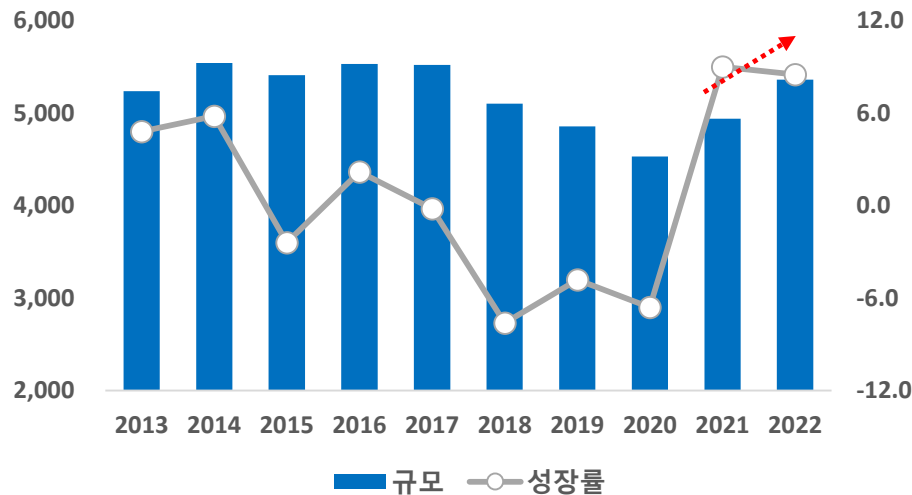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전망(단위: 억불, %)

구분	2021	2022	성장률
중동	4,942	5,361	8.5
아시아	66,451	72,129	8.5
북미·태평양	22,235	23,123	4.0
아프리카	1,433	1,626	13.4
유럽	29,961	31,338	4.6
중남미	5,323	5,841	9.7
합계	130,344	139,419	7.0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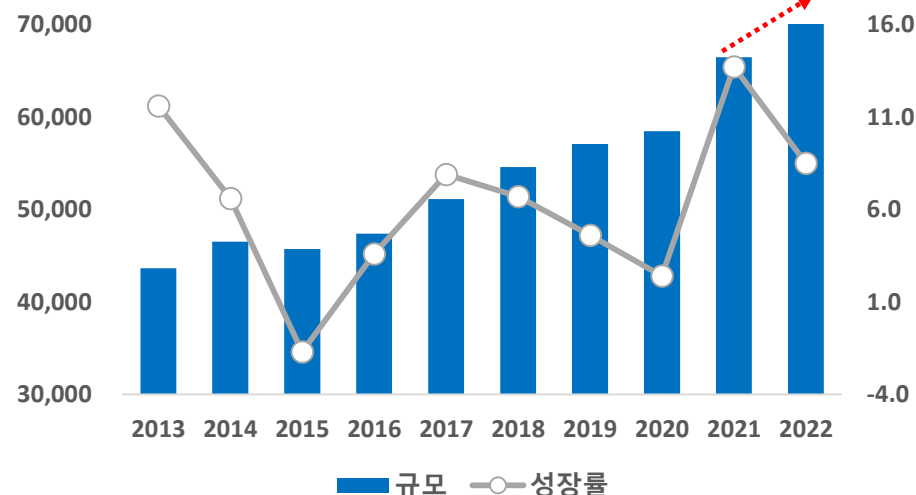
# 2022년 세계건설시장 전망\_중동, 아시아

## 중동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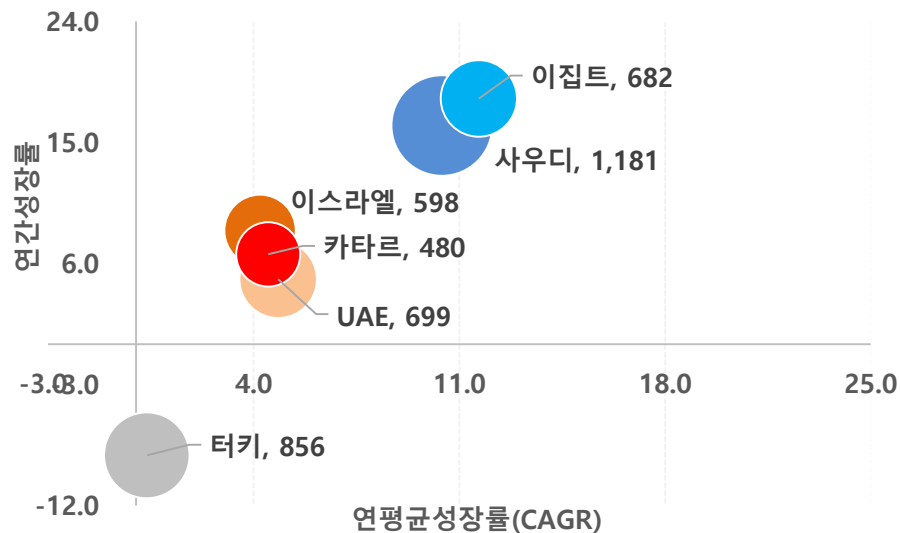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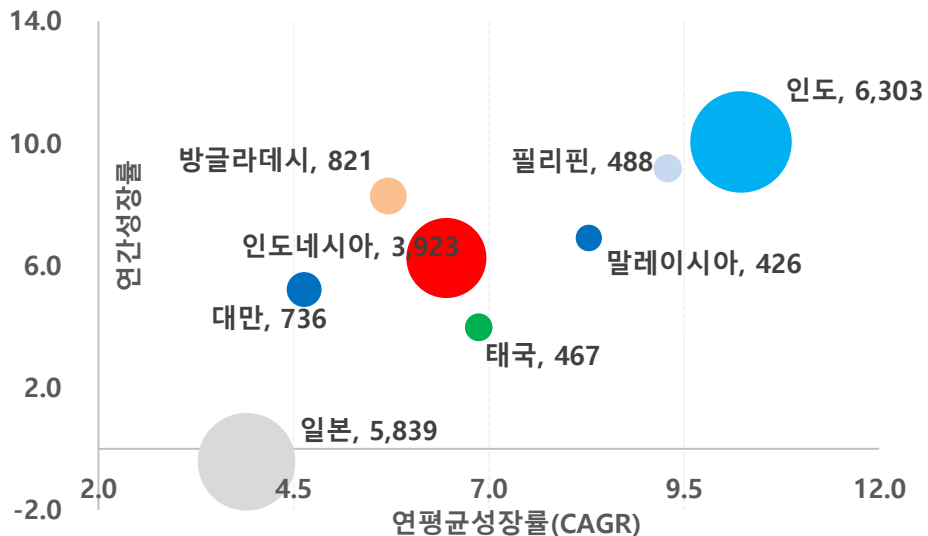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 주요국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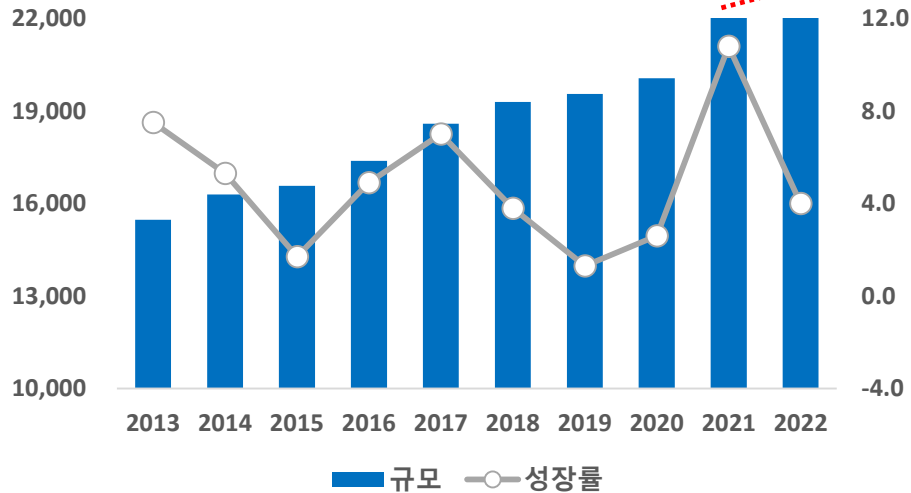
## 주요국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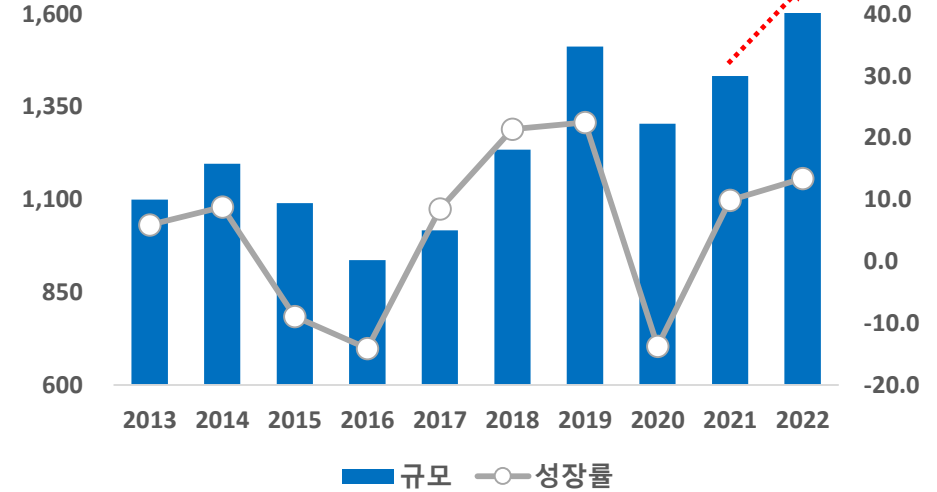
# 2022년 세계건설시장 전망\_북미·태평양, 아프리카

북미·태평양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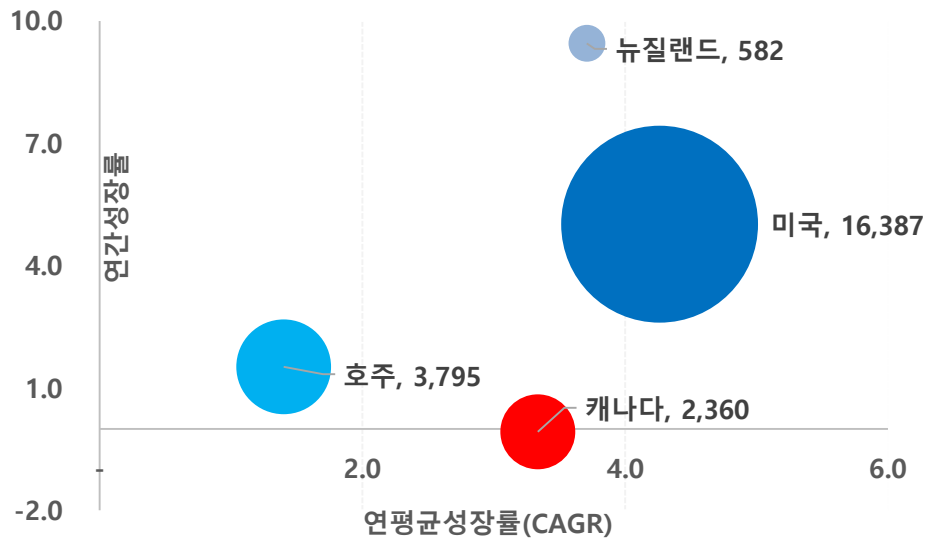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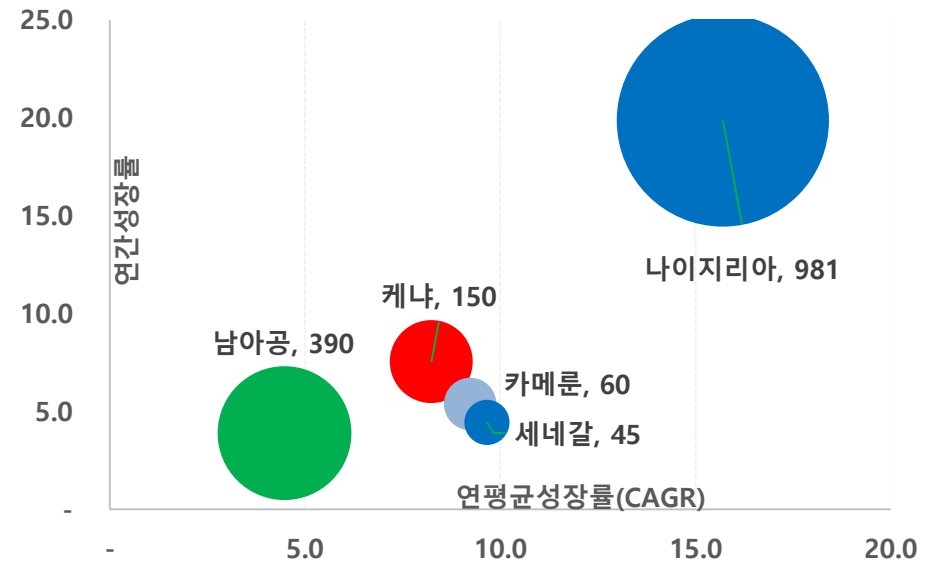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주요국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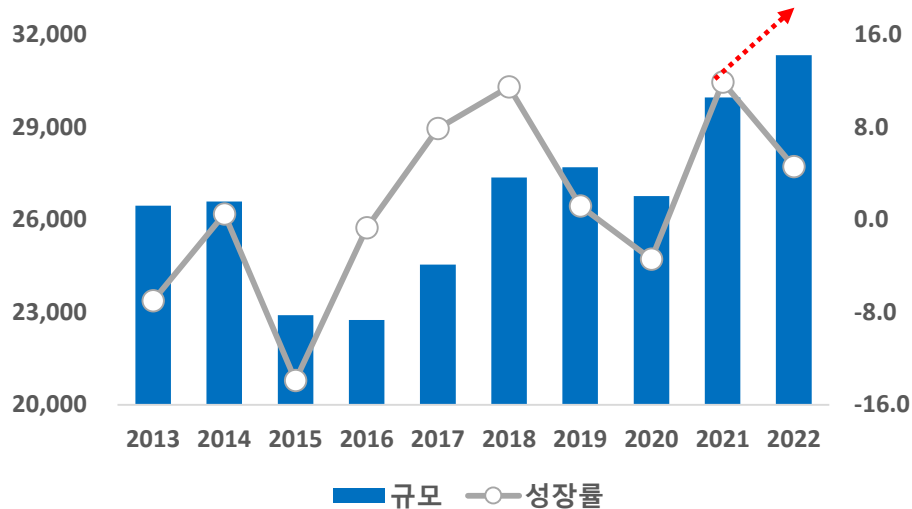
주요국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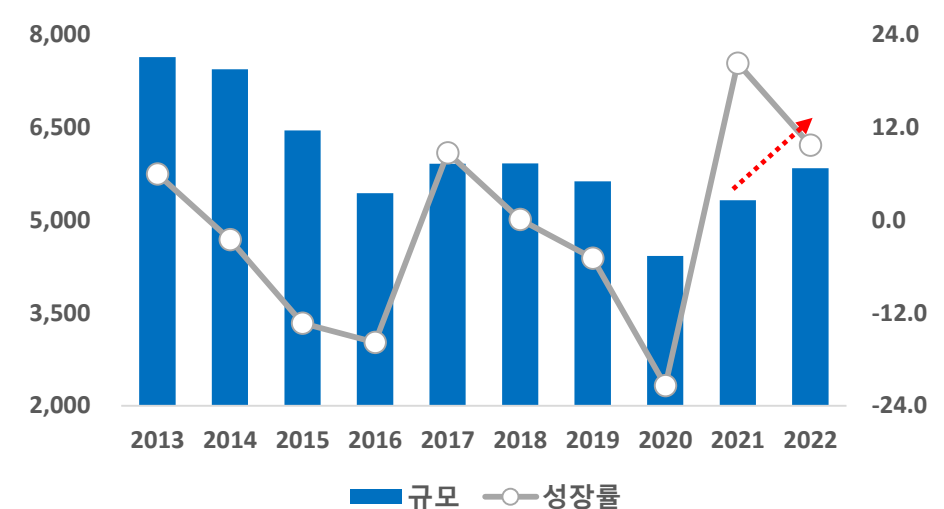
# 2022년 세계건설시장 전망\_유럽, 중남미

## 유럽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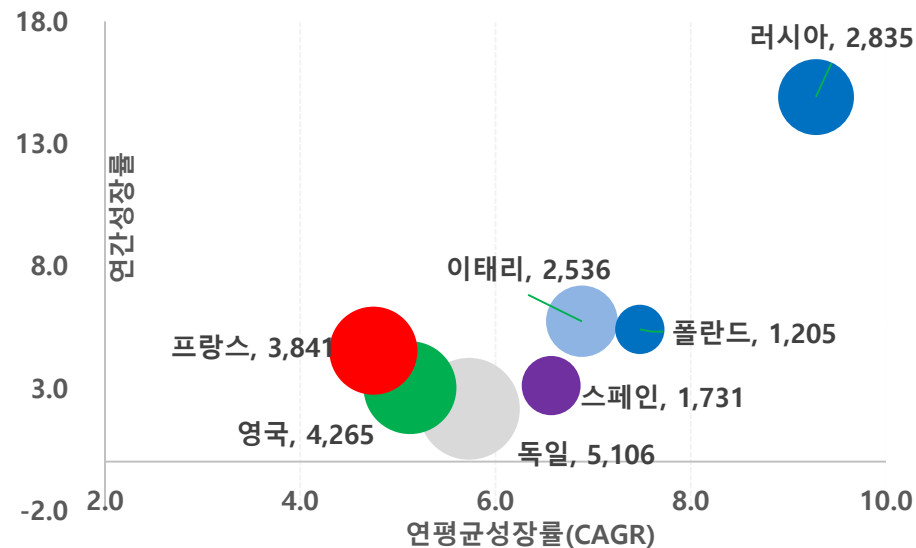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 중남미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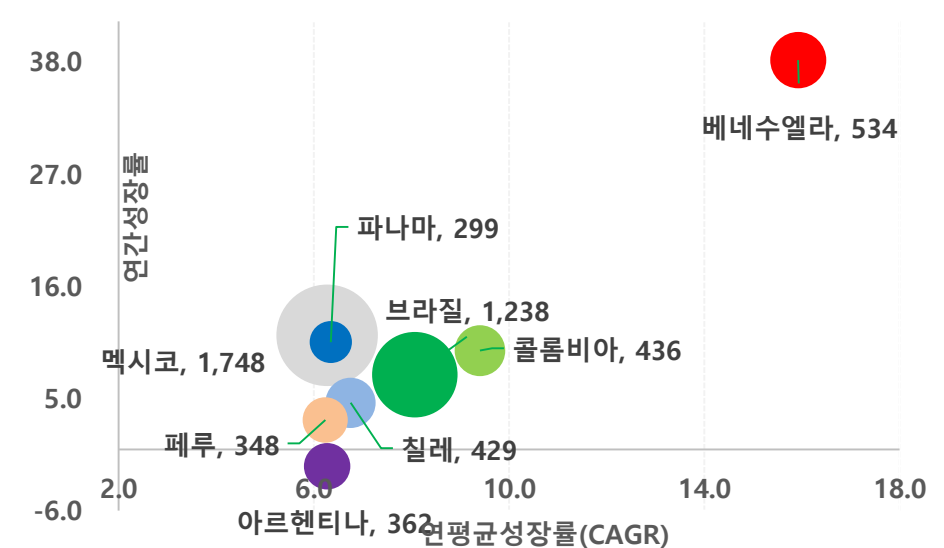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 주요국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 주요국별 시장 규모 및 성장률(단위: 억불, %)



[출처 :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 건설관리 전문가인 Reading 대학 로저 플래나간(Roger Flanagan) 교수는 '정보화, 지능화, 통합화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피력함

- ✓ (디지털화는 생산성 향상의 필수 요건) 현재 건설업은 정보통신, 제조 등 타 산업 대비 디지털화 수준이 낮으며, 생산성 증가율도 열위한 상황임
- ✓ (스마트 건설기술의 혁신 필요) 국내 디지털 건설기술의 기술 수준을 살펴보면, 선진국 대비 스마트 건설기술 수준은 69%, 기술격차는 3.9년으로 건설산업의 생존을 위해 디지털화는 필수로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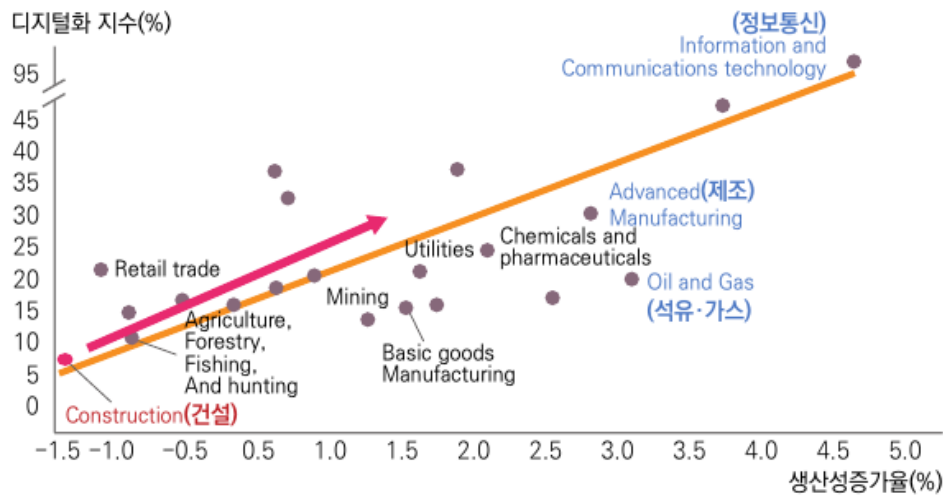
Professor Roger Flanagan



[출처 : 영국 Reading 대학교]

- 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스마트 건설 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건설기술 전반에 대한 연구와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가 필수로 됨

## 디지털화 지수와 생산성 증가율 관계



[출처 : McKinsey Global Institute]

## 국내 디지털 건설기술의 기술수준과 기술격차

구분	기술 수준 (%)	기술 격차 (년)	기술 성숙도 (단계)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69.0	3.9	5~6
1. 건설장비 자동화 및 관제기술	69.0	3.8	5~6
2. 도로구조물 스마트 건설기술	69.2	3.8	5
3.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	69.4	4.0	5~6
4. 스마트 건설 플랫폼 및 테스트베드	68.6	3.8	5

[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ICAK 정책지원센터]

## VR & AR

- BIM 모델 기반의 가상 건축물 체험을 통해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발주자 및 최종 사용자의 사업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음

## Modular Construction

- BIM으로 설계된 구성요소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공장에서 자동 생산 → 현장은 조립 위주
- 중국 Broad Group China사는 사전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해 19일만에 57층 빌딩 완공

## 3D Printing

- 모듈러 공법과 연계 또는 시설물을 현장에서 직접 프린팅
- MX3D사는 암스테르담에 운하를 잇는 금속 재질의 7.3m 다리를 3D 프린팅을 이용해 건설

## 지능형 건설장비

- Komatsu는 지능형 건설장비를 통해 센서와 통신 단말을 통해 건설기계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

## Drone

- 이미지, 비디오, 지형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현장의 자산관리 및 하도급관리에 활용
- 드론 기술로 대체 가능한 인프라 분야 금액은 452억불 수준임

## BIM

- BIM은 건설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생산성 개선에 효과적인 플랫폼
- 사업 정보 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참여자간의 협업 체계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해외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_디지털 신기술 도입 확대

## 미국 Branch Technology의 3D 프린팅

3D 프린터로 주택 건축을 위한 부품을 생산하고, 그 후 부품은 현장으로 이송되어 5주 동안 배관 등이 설치 조립 됨. 주택을 건축하는데 6개월 내외가 소요됨



[출처 : Branch Technology 홈페이지]

## 미국 Built Robotics의 자율주행 불도저

기존 장비 및 차량에 라이다(Lidar), 센서, 카메라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통해 환경을 인식하고, 인근 기지국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GPS 서비스까지 사용함



[출처 : Built Robotics 홈페이지]

## 독일 Holo Builder의 AR 현장 스케줄러

현장에 가지 않고도 360도 입체 영상을 활용한 증강현실을 통해 현장의 공정 관리, 향후 스케줄 예측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미국 H사는 연간 노동시간을 5,304시간 감소



[출처 : Holo Builder 홈페이지]

## 일본 Kajima의 건설 무인중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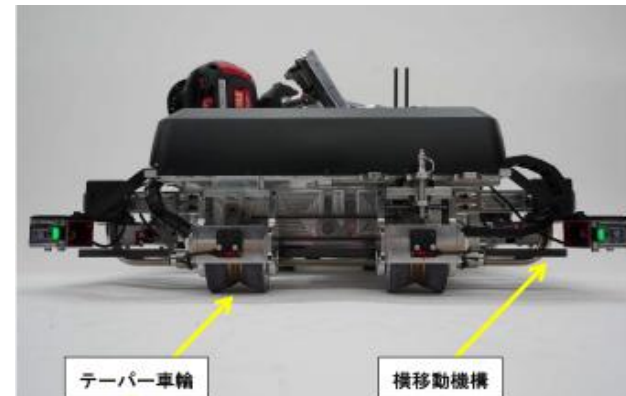
아닌 태블릿에서 여러 건설중장비의 작업계획을 지시하면 무인중장비가 자동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A4CSEL 시스템」으로 진동 롤러,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개발.



[출처 : Kajima 홈페이지]

## 일본 Taisei의 철근 결속 로봇

「T-iROBO Rebar」는 2종류의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철근 교차점을 검출하고, 장애물을 감지하여 철근을 결속. 골조의 20%를 차지하는 결속작업의 자동화를 향상



[출처 : Taisei 홈페이지]

## 일본 Shimizu의 Smart Site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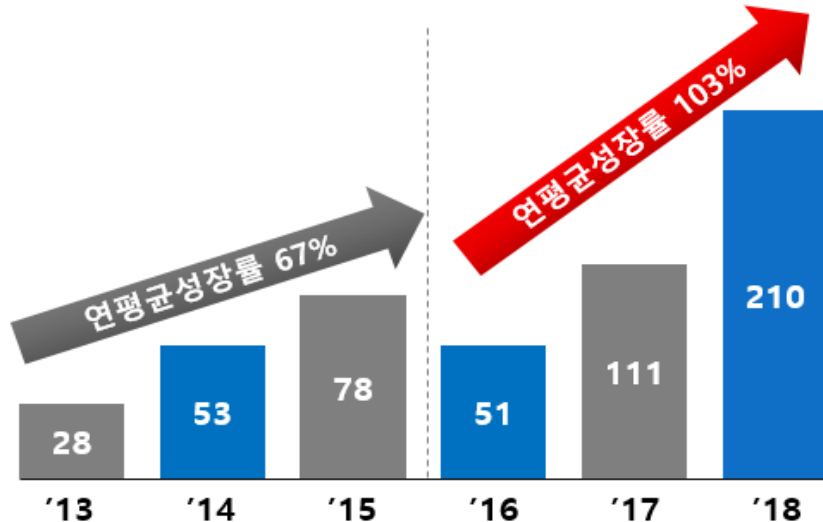
용접 토치를 조종하는 용접 로봇 Robo-Welder, 천장이나 바닥재를 시공하는 다능공 로봇 Robo-Buddy, Robo-Carrier의 수평·수직 반송로봇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



[출처 : Shimizu 홈페이지]

- (ESG 관련 규제·정책)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 정부는 ESG 관련 규제·정책\*을 지속 확대 중으로 '16~'18년 연평균증가율 103%임
  - ✓ (ESG 관련 신규 규제·정책 수) 28개('13년) → 78개('15년) → 210개('18년)
- (발주 공종) 주요국들은 Net-zero 2050 등 적극적인 탄소저감 목표 설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사업 등 환경·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큰 사업 발주를 지양할 가능성 존재
  - ✓ (주요국 정부의 탄소 제로화 추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12월 각국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제출하였으며,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 정부는 '50년까지 탄소 제로화 추진 발표
- (입찰 평가) 선진국 내 발주사업을 중심으로 ESG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조치를 예상할 수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적극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ESG 신규 규제 및 정책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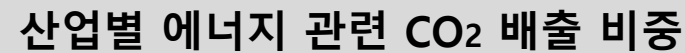
[출처 : US Federal Register, ILO, 삼정KPMG]

## 주요국 ESG 규제 및 정책

연도	주요 내용
영국	2006년 「회사법」에서 모든 기업이 매년 Business Review에 근로자,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준수 여부를 감사하게 함
네덜란드	「민법」에서 상장·비상장기업 모두에게 '비재무적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균형 잡힌 성별 표현을 위해 대기업 이사회의 30%를 여성이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일본	2005년 「환경배려활동촉진법」은 특정 공공 법인에 환경 보고를 의무화하고, 일반기업에 대한 환경 보고서의 공시를 권고함

[출처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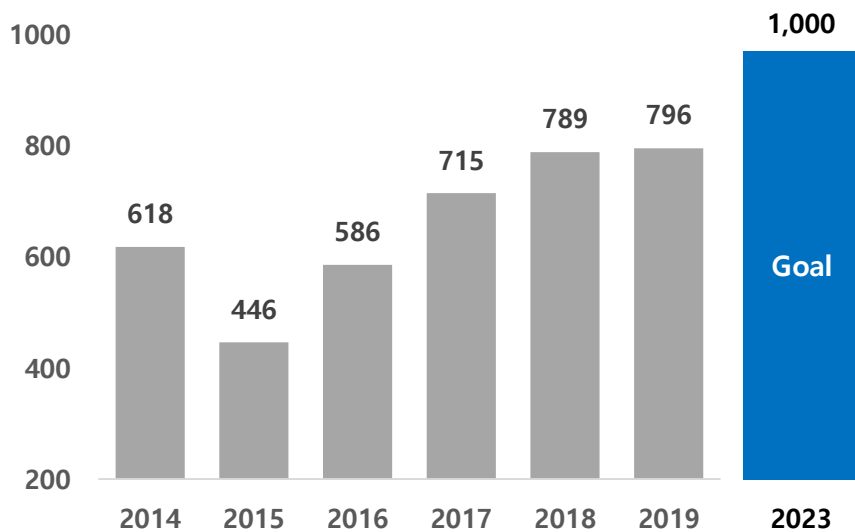
- ## 산업별 에너지 소비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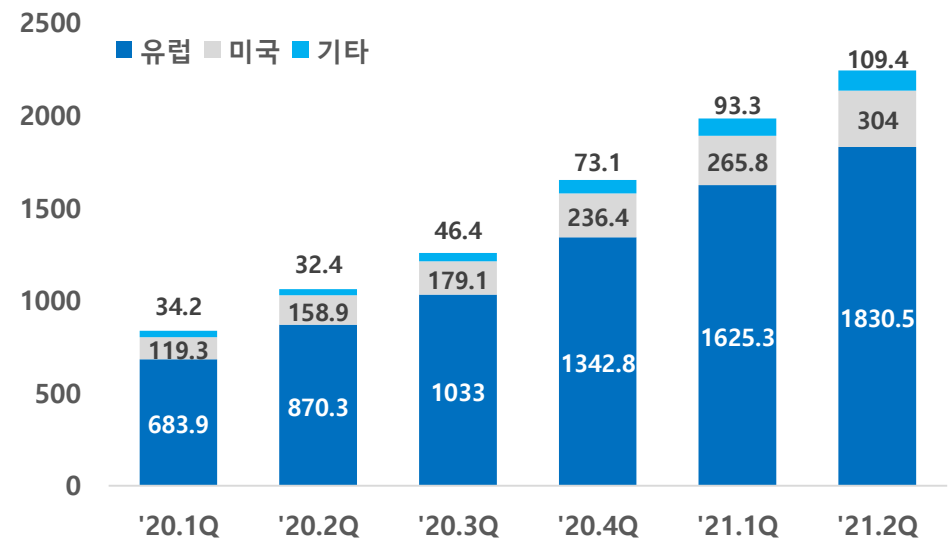
- COP26('21.10~11월, 영국 Glasgow) 결과를 비롯한 탄소중립 이슈와 관련한 발주 공종 변화 등 건설산업도 이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 할 시점임
  - ✓ (석탄발전의 감축 등)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에는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의 점진적 감축 및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는 문구가 합의문에 최초로 포함됨
  - ✓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 확대) 2023년까지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을 1,000억불 수준까지 조성할 계획
- 해외 ESG 펀드 규모를 보면 837억불('20년 1분기)에서 2,244억불('21년 2분기)로 168% 증가하는 등 ESG 분야로의 자금 유입은 급속도로 확대될 전망

기후재원(Climate finance) 추이(단위: 억불)



[출처 : OECD, BBC, ICAK 정책지원센터]

해외 ESG 펀드의 분기별 순자산 현황(단위: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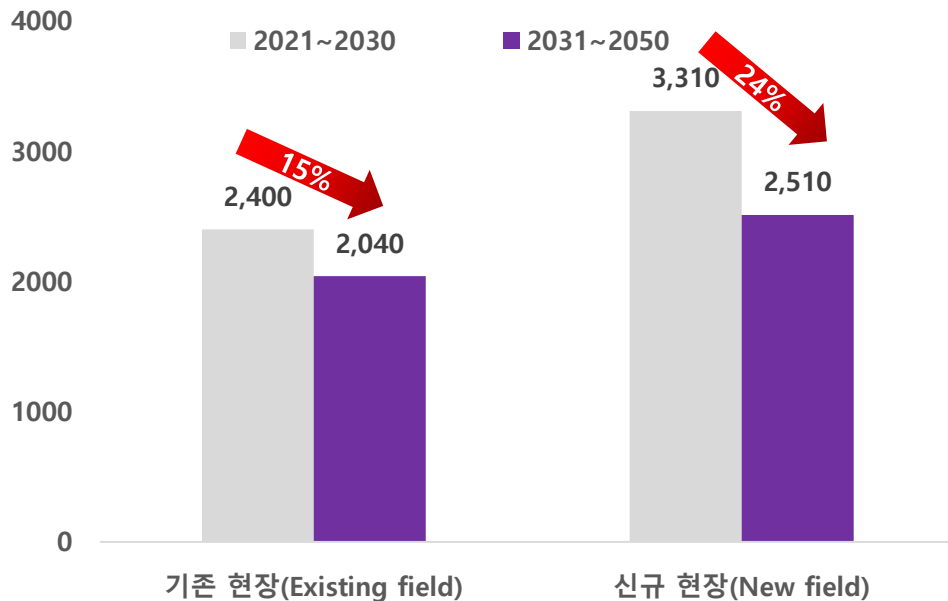
[출처 : 법무법인 율촌, ICAK 정책지원센터]



-

- 증장기적으로 Oil & Gas upstream에 대한 연평균 투자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석탄 등 주요 화석연료의 수요도 감소 또는 정체될 것으로 예측됨
- ✓ (Oil & gas upstream 연평균 투자액 전망) '21~'30년간 신규 현장에 대한 연평균 투자액은 3,110억불로 전망되나, '31~'50년간 투자액은 24%씩 감소한 2,510억불로 전망. 앞서 살펴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관된 투자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수요의 감소) 특히 '50년 석탄 수요는 '20년의 5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며, 석유 및 천연가스는 '30년 수요 전망치는 다소 증가하나 그 이후 감소 또는 정체될 것으로 전망

Oil & Gas upstream 연평균 투자액 전망(단위 : 억불)



[출처 : IEA, ICAK 정책지원센터]

\* IEA WEO2021, APS(Announced Pledges Scenario) 기준

주요 화석연료의 수요(Demand) 전망

구분	2020	2030	2050
석탄(Coal) [mtce, million tonnes of coal equivalent]	5,317	4,828	2,672
석유(Oil) [mb/d, million barrel per day]	87.9	96.1	76.7
천연가스(Natural gas) [bcm, billion Cubic meters]	3,999	4,249	3,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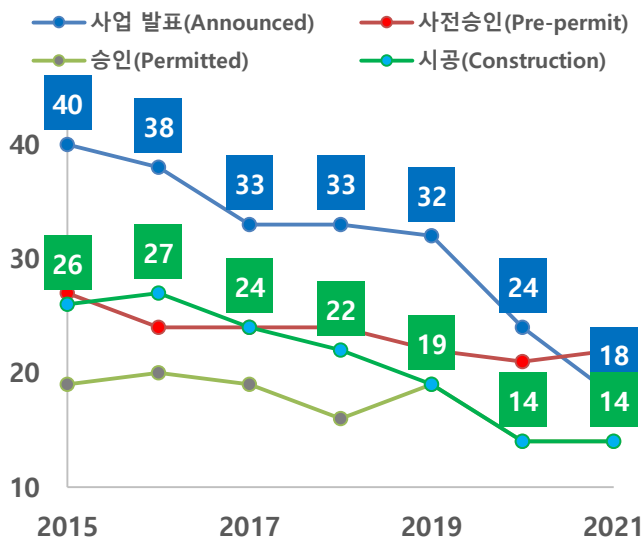
[출처 : IEA, ICAK 정책지원센터]

\* IEA WEO2021, APS(Announced Pledges Scenario)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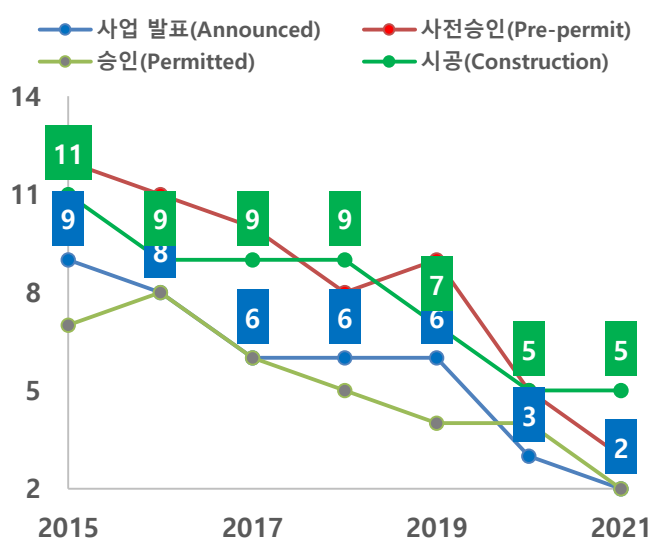
- 개발도상국 내 신규 석탄발전 발표를 하는 국가의 대폭 감소(55%) 및 EU 등 선진국의 탈석탄 가시화 등 탈석탄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 ✓ (Non OECD 국가의 석탄발전 시공, 신규 발주 감소 등) '15년에는 총 26개 국가가 석탄발전소를 시공 중에 있었으나, 점진적 감소로 '21년에는 14개 국가로 46% 축소됨. 신규 사업도 감소되고 있는데, '15년 총 40개 국가가 석탄발전소 사업을 발표했으나, '21년에는 18개 국가로 55% 축소됨
- ✓ (OECD & EU 등 선진국의 탈석탄 가시화) '15년에는 OECD & EU국가 중 총 11개 국가가 석탄발전소를 시공 중에 있었으나, '21년에는 5개 국가로 55% 축소됨. 신규 사업 발표 감소폭은 더 큰데, 총 9개 국가가 석탄발전소 사업을 발표했으나, 점진적 감소로 '21년에는 2개 국가로 78% 축소됨
- ✓ (주요 6개국에 집중된 석탄발전 비중) 석탄발전 계획의 80%가 중국(163GW), 인도(21GW), 베트남(19GW), 인도네시아(18GW), 터키(12GW), 방글라데시(10GW) 등 6개국에 집중되어 있음

석탄발전을 추진 중인 Non-OECD 국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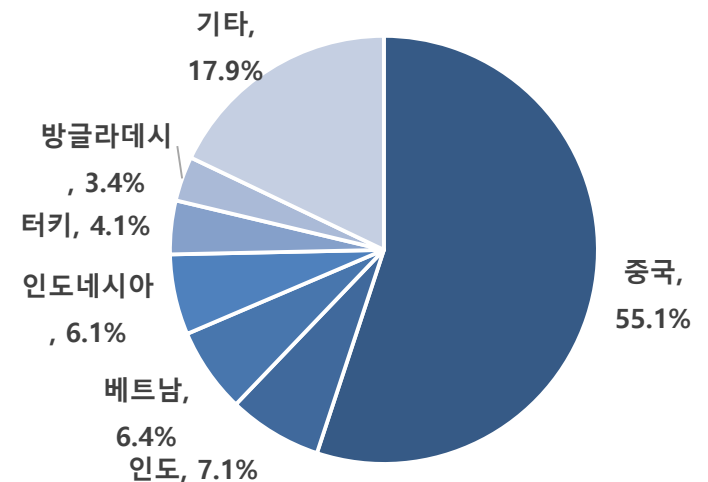
[출처 : Carbonbrief, ICAK 정책지원센터]

석탄발전을 추진 중인 OECD & EU 국가수 추이



[출처 : Carbonbrief, ICAK 정책지원센터]

주요 6개국의 석탄발전 비중



[출처 : Carbonbrief, ICAK 정책지원센터]

- 기후변화 이슈 대응 관련 특화 사업을 개발 등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 및 강화 필요
- COP26을 계기로 탈석탄의 가속화는 지속될 것이나, 중간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전력수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 (원전 및 가스발전의 EU Taxonomy 포함시 시장 활성화) EU는 최근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을 환경, 기후 친화적인 산업으로 분류하는 EU 녹색산업 분류체계(Taxonomy)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보낸 상황임. 단, 회원국간 입장차가 커서 초안대로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임
  - ✓ (저탄소 건축 공법 개발 및 활용 확대) Net-Zero(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산업별 조치 대응

## 기후변화 이슈 대응을 위한 유망 사업

공종	세부 분야	유망 사업군
산업설비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 발전, 에너지저장시설(ESS)</li> <li>· 수소 생산·저장·운송 인프라, 원전 등</li> </ul>
	폐기물처리·친환경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플랜트, 친환경 매립</li> <li>· 친환경소재 제조 플랜트</li> </ul>
토목	친환경·차세대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도시철도·버스체계), 지능형교통체계(ITS)</li> <li>·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li> </ul>
	전통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 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분야 투자개발형 사업</li> </ul>
건축	도시개발·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회주택, 의료·방역시설</li> </ul>
	디지털·스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센터, 물류시스템</li> </ul>



# 감사합니다.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정지훈 책임연구원

[jhjung@icak.or.kr](mailto:jhjung@icak.or.kr)

02-3406-1054